

2010년 3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1,054조회)

밤 한 톨  
一粒の栗

저녁 무렵에 숲을 거닐다가  
夕方ごろに、森を散歩したら

우연히 어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偶然にある小さい子供の泣き声が聞こえた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며 참새처럼 팔딱팔딱 뛰고  
息が途絶えるように泣きながら、つばめのように、びよんびよん走って

있더구나. 마치 여러 송곳으로 뺨속을 찌르는 듯,  
いた。まるで、多くの錐で骨髓を突くように

방망이로 심장을 마구 두들겨 맞는 듯 비참하고  
棒で心臓をやたらに殴るように、悲惨で

절박한 것이 잠깐 사이에 목숨이 꼭 끊어질 것  
切迫して、ちよつとの間に命が切れる

같은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ような姿だった。なぜこのように泣いているのか

알아보았더니, 나무 아래에서 밤 한 톨을  
調べてみたら、木の下で一粒の栗を

주웠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기  
拾ったが、他人が奪った

때문이란단다.  
ためだそうだ。

- 김상렬의《생각하는대로 된다》중에서 -  
- キム・サンリョルの<思うようにすればよい>より -

\*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쉽게 푼 글입니다.  
\* 茶山、丁若鏞(チョンヤギョン)の話を分かりやすくほどいた文章です

밤 한 톨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一粒の栗がある人には生命とも同じです。

다른 사람에게는 보잘 것 없고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他人には何の値打ちもない取るに足りないことかもしれない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귀한 것입니다.  
ある人には、とても大切に、貴いものです。

때문에 그것을 잃었을 때의 허탈함과 상실감은  
このため、それを無くしたときの虚脱感と喪失感は

다른 사람의 상상의 범주를 뛰어 넘습니다.  
他人の想像の範疇を越えます。

아이든 어른이든 그 사람의 손 안에 있는  
子供たちでも、大人たちでも、その人の手の中にある

밤 한 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一粒の粟を、軽く思わないで下さい。

그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인지도  
その人の命が懸かったことかも

모르니까요.  
知れませんか

무렵

[의존명사] 頃;時分;折り。

거:닐다

[자동사] ぶらつく;徘徊する;散歩する。

숨(이) 넘어가다

《관용구》息がとだえる;死ぬ。

올어-대다

[자동사] つづけてしきりに泣く;泣きしきる。

참-새

[명사] 『조류』雀。

팔딱-팔딱

[부사·하다형 자동사] ぴょんぴょん;ぱつぱつ。

송:곳

[명사] 錐。

こつ-ずい [骨髓]

[명사] 골수.

1. [명사] 『생리학』 뺨속.

찌르다

<1> {타동사·르 불규칙 활용} (針·刀などで)突き刺す;刺す;突く。

<2> {타동사·르 불규칙 활용} さし込む;つつ込む。

방망이1

<1> [명사] (きぬたの棒などの)棒。

<2> [명사] ⇒곤봉

마구

<1> [부사] やたらに;前後をわきまえず;むこう見ずに。

<2> [부사] 非常に勢いよく;めったやたらに。

두들기다

[타동사] (やたらに)叩く;殴る。[센말] 두들기다

맞다1

[자동사] 当たる。

<1> [자동사] ぶつかる。

비참 [悲慘]

[명사·하다형 형용사] 悲惨;惨め。

절박 [切迫]

[명사·하다형 형용사] 切迫。

<1> [명사·하다형 형용사] 時間や期限がさしせまること。

목숨

[명사] 命;生命;寿命。

끊어-지다

<1> [자동사] (物が)切れる;断ち切れる;切断される。

<2> [자동사] (関係が)断ち切れる。

보잘것-없다

[형용사] 何の値打ちもない;つまらない。[동의어] 하잘것없다

20100329.txt

범:주 [範疇]  
[명사] 範疇;カテゴリー。

丁若鏞 1762(英祖38)~1836(憲宗2)。朝鮮後期の実学者。  
畿湖南人星湖学派の信西派人物。本貫は羅州。

2010년 3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2,403조회)

길거리 농구  
ストリートバスケットボール

공터에 마련된 농구대에서  
空き地に準備されたバスケットボール台に

한 무리의 청소년이 길거리 농구를 했다.  
ひとかたまりの青少年が、ストリートバスケットボールをした

쉬어갈 겸 짝은 벤치에 앉아 농구 경기를 구경했다.  
休んで行くことをかねてジャックはベンチに座って、バスケットボールを見物した

골대 여덟 개에 족히 열 개가 넘는 공이 쉼 없이  
ゴール台で8回ゆうに10回を越えてボールが休みなく

링을 들락거렸다. 중구난방으로 엉켜 있었지만  
リングをそれたり、入ったりした。難しく、もたもたしていたが

모두 각자의 볼을 정확히 찾아  
総ての各自のボールを正確に捕らえ

자신들만의 게임을 즐겼다.  
自分たちだけのゲームを楽しんだ。

- 장원철의《구두장이 잭》중에서 -  
- チャン・ウオン Chol의〈靴修理人ジャック〉より -

\* 중구난방으로 엉켜 있어도  
\* 難しくもたもたしていても

우리 모두는 일정한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私たちは、一定の秩序の中に生きています。

수많은 엉킴과 부딪힘이 있지만 링은 하나입니다.  
多くのもつれと接触があるが、リングは一つです

서로가 잘 뒤섞여 함께 잘 사는 행복의 링!  
お互いが、よく混ぜ合わさって一緒に生きる幸せのリング!

링이 하나이므로 방향도 하나입니다.  
リングが一つゆえに、方向も一つです。

모두가 한 방향일 때 그 공동체도  
総てが一つの方向であるとき、その共同体も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幸せ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

길-거리  
[명사] 街頭;往来;通り;路頭。[준말]거리  
농구 [農具]  
[명사] 農具;農機具。  
농구 [籠球]

[명사] 籠球;バスケットボール。

공-터 [空-]

[명사] 空き地。

무리1

<1> [명사] ある関係を持って集まった大勢の人:群れ;集まり;連中;やから。

<2> [명사] (獸, 鳥などの)群;群れ。

쉬어가다 休んで行く

들락-거리다

[자동사] ⇒들랑거리다

들랑-거리다

[자동사] しきりに出入りする;出たり入ったりする。

골-포스트 [goalpost]

골포스트

1. (럭비·축구 등의) 골대.

족-히 [足-]

[부사] 優に;問題なく。

중:구-난방 [一難防]

《관용구》衆口塞ぎ難し;多くの人にいちいち口止めすることはむずかしいとの意。

엉기다1

<1> [자동사] (仕事などの手際が悪くて)もたつく;ぐずぐずする;もたもたする。

<2> [자동사] やっと這う。

구두장이

[명사] 구두를 만들거나 고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엉키다

[자동사] ‘엉클어지다’의縮約形。

엉클어-지다

[자동사] 糸や紐, または物事がもつれて解決がつかなくなる。

부딪히다

[자동사] ‘부딪다’의受動:ぶつけられる;ぶつかる。

뒤-섞이다

[자동사] ‘뒤섞다’의受動:取り混ぜられる;混ぜあわされる。

2010년 3월 31일 보낸 편지입니다.(1,176조회)

꿈꾸는 부부는 늙지 않는다  
夢見る夫婦は老いない

아내가 꿈을 이루려는 노력을  
嫁が夢をかなえる努力を

남편이 인정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夫が認めてあげることにとどまらず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주면 그 아내는 훨씬 쉽게  
積極的な後援者になってあげれば、嫁はっすう簡単に

꿈을 이룰 수 있다. 상대의 꿈에 기대 사는 부부보다  
夢をかなえることができる。相手の夢に寄りかかって生きる夫婦より

꿈을 후원하는 부부가 결국은 무한 스피드  
夢を応援する夫婦が結局は、無限のスピード

경쟁시대에 최후의 승자가 된다.  
競争時代に最後の勝者になる。

- 김미경의《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중에서 -  
- キム・ミギョンの<夢ある嫁は老いない>より -

\* 두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면  
\* 二人の男女があつて、夫婦になれば

점차 꿈이 시들고 사랑도 식기 쉽습니다.  
段々夢がなくなり、愛もさめやすいです

가장 잘 아는 사이 같아도 정작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一番良く分かる間柄のようでも、本当は知らないことだらけです

사랑하는 부부일수록 서로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愛する夫婦であるほど、お互い分かり合う訓練が必要です

서로 몸을 알고 마음을 알고 꿈을 알아야 합니다.  
お互いの体を分かつて、心を分かつて、夢を分か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꿈꾸는 부부는 늙지 않습니다.  
夢見る夫婦は老いません。

그치다1

[자동사] 止む;止まる;終わる;途絶える。

점:차 [漸次]

[부사] 漸次;物事がゆっくりと変わるようす;だんだん;次第に。

시들다

<1> [자동사] (草花が)しおれる;しぼむ;枯れる。

<2> [자동사] (体力が)弱る;元気が無くなる。

식다

<1> [자동사] (熱いものが)冷える;さめる。

<2> [자동사] (熱意・情熱などが)さめる;冷える;薄れる;消え去る。

정:작

<1> [부사] 本當に;實際に;いざ;まさに。

<2> [부사] (名詞的に)本當;本物。

-투성이

<접미사> 一部の名詞の後に付いて。

<1> <접미사> 血·汗·泥·ほこりなど汚いものが一面について汚れることをあらわす:…まみれ;…みどろ;…だらけ。

2010년 4월 1일 보낸 편지입니다.(1,333조회)

처음 겪어본 불행  
初めて経験した不幸

“처음 겪어본 불행.  
”初めて経験した不幸

지금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은  
今、どん底だと言える間は、

아직 진짜 밑바닥이 아니다.”(윌리엄 셰익스피어)  
まだ本当のどん底ではない”(ウィリアム・シェイクスピア)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에 맥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은  
いつの日か突然切迫した不幸に、力なく落ちるようになることは

우리가 처음 겪어본 일이기 때문이다.  
私たちが初めて経験したことだからだ

처음이어서 더 아픈 것이다.  
初めてで、痛いだろう。

- 오유선의《내 마음에 말 걸기》중에서 -  
- オ・ユソンの〈私の心に言葉をかける〉より -

\* 처음 겪어본 불행,  
\* 初めて経験した不幸

그 안에 매우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その中に、とてもたくさんの教訓が詰っています。

그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불행은 두 번, 세 번  
その教訓を、そのまま悟らなければ、不幸は2回、3回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繰り返して、やってきます。だから、訓練が必要です。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보는 연습입니다.  
本当のどん底まで、おりてみる練習です。

더 깊은 밑바닥을 미리 경험할수록  
さらに深いどん底を、前もって経験するほど

처음 겪어본 불행에 놀라거나  
初めて、経験した不幸に驚いたり、

추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墜落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ウィリアム・シェイクスピア

닥치다

[자동사] 近づく;近寄る;切迫する。

맥없이 [脈-]

<1> [부사] 元気がなく;ぐったりと;しょんぼりと;しおれて。



20100401.txt

<2> [부사] 訳もなく;たやすく。

2010년 4월 2일 보낸 편지입니다.(1,086조회)

'다르다'와 '틀리다'  
'違い'と'不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을  
二人がお互いに違う点を

각자의 타고난 개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各自の生まれ持った個性と認めずに

'틀린 점'으로 취급하는 순간, 부부 사이에는  
'不和な点'として扱う瞬間、夫婦の間には

상처가 자리잡기 시작한다.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처럼  
傷が収まり始める。初めて会った時の心のように

'다르다'를 '다르다'로 기쁘게 인정하자. 세월이 흘러  
'違い'を'違い'で、喜んで認めよう。歳月が流れ

'다르다'가 '틀리다'로 느껴진다면, 이전보다  
'違い'が'不和'で感じられれば、以前より

꼭 두 배만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必ず2倍くらいの配慮する心を持つ

- 최일도의《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놀아주기》중에서 -  
- チェ・イルドの〈本当に大切だから...少しずつ放すために〉より -

\* '다르다'와 '틀리다'는 전혀 다릅니다.  
\* '違い'と'不和'は全然違います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닌 것이지요.  
'違うこと'は決して、'不和な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

부부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夫婦はお互い'違う'人であり、'不和な'人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두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은 늘 같아야 합니다.  
しかし、二人が眺める方向は、ずっと同じ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お互い'違う'人があって、同じ方向を眺めれば

'다르다'가 어느새 '닮았다'로 바뀝니다.  
'違い'が、いつの日か'似通った'に変わります。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夫婦はお互い似て行くのです。

틀리다1

<1> [자동사] 違う;間違う;誤る;合わない;食い違う;狂う.

<2> [자동사] 仲違いする;不和になる.

타고-나다

[타동사] (福・才能・性根などを)生まれながら持っている.

개:성 [個性]

[명사] 個性。

취:급 [取扱]

[명사·하다형 타동사] 取り扱い。

<1> [명사·하다형 타동사] (物を)取り扱うこと。

2010년 4월 3일 보낸 편지입니다.(272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정희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ジョンヒ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순수한 마음  
純粋な気持ち

그렇습니다.  
そうです。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心はダイヤモンドのように

순수 할수록 더 무게가 나갑니다.  
純粋なほど、さらに重みが出ます。

마음은 팔고 사지 못 하지만  
心は、売ったり、買ったりできないが

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あげられることが、自身が一番大切な財産です。

- 이정하의《돌아가고 싶은 날의 풍경》중에서 -  
- イ・ジョンハの<振り返りたい日の風景>より -

\* 순수함을 간직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純粋さを大切にして生きていくことは、たやすくありません。

나이들수록 더 순수함을 가진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年をとるほど、純粋さを持った人は美しいです。

그 마음이 참 보배입니다. 각박한 현실속에서도 순수하고  
その心が、本当の宝です。冷酷な現実の中にも純粋で

투명한 자신의 모습을 간직 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透明な自身の姿を大切にできることが大きな祝福です。

그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향기가  
その純粋な心からうかびあがる愛の香りが

우리의 삶을 더욱 넉넉하게 해 줄 것입니다.  
私たちの人生をさらに豊かにしてくれるでしょう。

좋은 글 주신 김정희님께  
いい文章を書いてくださったキム・ジョンヒさまに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感謝と祝賀の挨拶をいたします。

각박 [刻薄]  
[명사]<하다형 형용사> 薄情なこと;きびしいこと;せちがらいこと;冷酷。  
우러-나오다

20100403.txt

<1> [자동사] (考えや感じなどが)心から湧き出る;浮び上がる。

<2> [자동사] (涙・声などが)自然に湧きおこる;湧き出る。

넉넉-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十分である;間に合う;足る。

<2> {형용사·여 불규칙 활용} 豊かだ;裕福だ;事欠かない。